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7, Vol. 18, No. 6, 409-432

청소년동반자의 작업동맹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 은 선 장 석 진†
충청대학교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의 작업동맹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로 청소년동반자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 내담자와 작업동맹을 이뤄가며, 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히고자 van Manen의 해석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8명으로 6개월 이상의 청소년동반자 근무 경력자 중 대학원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전공한 자로 선정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경험 탐구를 위해 대면 면담 및 전화·메일을 통한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와 연관이 있는 어원·관용어구, 문학 자료를 통해 연구자의 가정 및 선 이해를 명료히 하고, 연구자의 경험에 대해서도 반성적 사고를 거치면서 현상학적 탐구 자세를 유지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상담실을 나선 상담자: 혼란 속의 만남'과 '관점의 확장과 수용: 참만남과 이해', '청소년동반자로 거듭나기: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함', '거름이 되는 자원들: 또 다른 시작의 기반'이라는 4가지의 본질적 주제와 의미, 그리고 13가지의 세부 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상담실을 나와 청소년들을 찾아가면서 혼란 속에서 만남을 시작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 대해 새로이 눈을 뜨고 시야를 확장할 것을 요구받는 경험이다. 이를 수용하면서 비로소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참다운 만남을 경험하고,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하는 등 청소년동반자로 거듭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성된 거름을 원동력으로 삼아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하면서 청소년동반자로서의 작업동맹 경험을 지속해간다. 본 연구는 이렇듯 위기 상황의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개인에게 특성화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상담이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청소년동반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동반자 및 그들의 상담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후속될 경험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청소년동반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맞춤화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청소년동반자, 작업동맹, 경험, 해석적 현상학적 연구

---

* 본 원고는 이은선(2016)의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석진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Tel: 02-2287-5497 / E-mail: schang@smu.ac.kr

서 론

청소년기는 존재 및 정체감 형성의 문제들과 당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숙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Winnicott, 2001). 이 시기에 이른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발달적 변화를 겪으면서 그 간의 성장과정과 주변인들의 반응을 통해 익숙하게 느껴 온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Feldman, 2006; 서진숙, 이동혁, 2010 재인용). 이를 위해 이들은 익숙했던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재기하는 등 낯선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자신을 재확인 또는 재발견하면서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특징이다(Berk, 2007). 이 시기의 자기 발견은 이전 시기의 발견 또는 발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즉, 유아기나 아동기에 경험하는 자신 및 주변에 대한 발견이 무조건적인 습득과 격려에 의해 수행된 것이라면 청소년기의 발견은 익숙한 것 또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재확인과 도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대상과의 친밀감 및 신뢰감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주변 환경과의 갈등이나 내적인 혼란이 마찰이나 비행의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아진다(Paul & White, 1990; 박성준, 김주일, 2015 재인용).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징은 곧 청소년을 내담자로 만나는 청소년 상담의 특징이 된다. 청소년 상담사들은 청소년들의 탐색과 재조직 과정을 효과적으로 돕고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 이면에 가리어져 있는 내적 갈등과 욕구를 알아차리도록 조력한다. 또한 청소년 상담사들은 각각의 청소년에게 내재된 가능성의 씨앗이 그가 뿌리내린 토양 내에서 효과적으로 움을 틔울 수 있도록, 밀거나 끄는 힘을 더하면서 그 성장 과정을 비춰주는 조력자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다각적이고 실제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들의 적응력과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건강한 성장의 지원이 바로 청소년 상담의 목표가 된다(권해수, 류진아, 2007; Winnicott, 2000; Winnicott, 2001; Fiorini & Mullen, 2006).

이는 또한 청소년들을 대면하는 청소년 상담사 개인의 목표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1993년 이래, 5개년 단위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발전시켜왔다. 제1~2차 계획기를 거치며(1993~2002) 청소년을 대상이 아닌 참여 주체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정책은, 제3차에 이르러(2003~2007) 복지와 상담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행정 체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도미향, 2004). 이 후 제4차에는(2008~2012)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망 강화가 목표가 되었으며, 현 제5차에 이르러서는(2013~2017) 모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이를 위해 구축된 통합적 안전망 체계가 바로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이라 불리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이를 관할한다(차은미, 2015).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 체계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유입・보호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점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10월 기준, 전국 225개의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종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1388 헬프콜 청소년 전화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공조, 지역주민・기관・단체 등 지역 내 자원 파악을

통한 안전망 확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김두현, 2007; 이채식, 2007; 차은미, 201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 하나인 청소년동반자(YC: Youth Companion) 상담에는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과 변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동반자들이 겪게 되는 독특한 어려움 및 갈등이 있다.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첫 번째 특징은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파격적 접근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다차원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까지 체계 안으로 유입시킨다는 것이다(박지영, 2011). 기다리는 것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청소년들, 다시 말해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이유로 외부와 단절된 청소년들에게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지만,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상담에서 유지되던 상담의 틀과 경계가 흔들리면서 청소년동반자들은 여러 가지 도전적 상황과 당면하게 된다(박한샘, 공윤정, 2011).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두 번째 특징은 각각의 청소년에게 맞춤화된 도움을 다차원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있다. 앞서 말했듯 청소년동반자들은 내담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그들 각각의 주변 환경을 직접 접하게 되고, 덕분에 보다 입체적으로 내담자의 상황을 조망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맞춤화되고 다차원적인 방식의 동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청소년동반자는 이로 인해 상담자인 동시에 사회복지사로서 기능하면서 다시금 역할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4; 박한샘, 공윤정, 2011; 대안교육프로그램집, 2004; 정숙경, 2007 재인용).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다양한 연계 및 매개 역할을 꼽을 수 있다(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청소년동반자는 각각의 청소년 내담자들에게 맞게 특성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내담자 주변의 자원을 발굴 · 연계하게 되며, 지역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내담자 또는 청소년 내담자와 그들을 의뢰한 주변인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성과 중간 관리자 역할로 인한 어려움은 청소년동반자들의 몫이 되기에 예기치 못했던 곤란함을 겪는다.

청소년동반자 상담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및 한국학술정보(KISS)의 검색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정책적 효과와 필요성 및 추진배경 등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는 큰 틀의 측면에서 접근해 온 연구 또는 청소년동반자 연수 및 보수교육 자료가 대부분이다. 또한 청소년동반자를 연구의 대상 및 주제로 진행된 선행연구는 소진 및 직무 만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정유정, 2011). 이는 청소년동반자들의 높은 이직 및 퇴직율과 관련이 깊은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1년을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제 청소년동반자가 절반 이상에 이르며 비협조적인 업무환경과 체계의 미흡으로 갈등을 겪음을 알 수 있다(박한샘, 고은영, 2009; 양재원 외 2010;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한편 청소년동반자를 관리하는 기관과 정책 담당자들로 하여금 청소년동반자의 근무 고충을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해결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있었으나(설경옥, 임정임, 2013; 송재희, 2014; 양재원 외, 2010; 이영순, 김은정, 천성문, 2009; 이임천, 이상희, 2010; 최한나, 손자영, 이은주, 2013), 실제로 청소년동반자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이 지적되어 왔다(박한샘, 고은영, 2009). 때문에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 상담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동반자들은 상담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를 드러내는데 집중함으로써 제한적이었던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경험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청소년동반자의 상담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상담관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작업동맹에서 출발하였다. 작업동맹이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협력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능동적 동참을 위한 안내와 격려를 뜻한다. 이는 Freud의 전이(transference) 개념을 근원으로 하는데 Sterba의 자아동맹(ego alliance), Zetzel의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을 거쳐 1965년 Greenson이 작업동맹(working alliance)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김은지, 2012; 이정화, 2007). 목적을 갖고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의 능력을 강조한 Greenson은 긍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등 작업동맹의 중요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후 Bordin(1979)은 정서적 유대(bond), 상담 목적에 대한 이해와 동의(goal), 상담 과제에 대한 이해와 동의(task)라는 세 가지로 작업동맹의 개념을 통합하였다. 이렇듯 작업동맹은 상담의 목표 및 과제를 위한 협력을 중재하고, 이론을 초월하여 상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으나 실제로 청소년을 상담에 동참시키며 동맹을 형성하는 일은 청소년 상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에 속한다(Kazdin, 1994; 김은지, 2012 재인용; Greenberg & Webster, 1982; Horvah & Luborsky, 1993; 김지환, 2012 재인용; Martin, Garske, & Davis, 2000; 김지환, 2012 재인용; 김정욱, 이훈진, 이장호, 2005; 양미진, 2006; 이정화, 2007; 정은미, 2004; 홍혜숙, 2015). 왜냐하면 청소년 내담자들은 부모나 교사 등 타인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가 많은 바, 상담에 대해 거부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혜숙, 공윤정, 박한샘, 1996; 양미진, 2006). 때문에 청소년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약속이자 협력 관계인 작업동맹, 즉 관계의 질적 측면이 더욱 중요해진다. 더구나 청소년동반자들에게 배정되는 위기 청소년들은 대체로 오랜 시간 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바, 작업동맹은 상담을 위협하는 동시에 상담의 물꼬를 틀 결정적 계기를 이끄는 중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동반자와 청소년 내담자 간에 치료적 관계인 작업동맹이 어떻게 형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은 결국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해가 선행될수록 더 많은 청소년동반자들이 더 다양한 내담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동반자의 작업동맹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곧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청소년 상담의 목적과도 그 뜻을 함께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들의 경험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겪는 난관과 이를 헤쳐 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은 예비 청소년동반자 또는 청소년동반자들로 하여금 사회안전망 체계에 뿌리내리기 어려운 상황의 청소년 내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나아가서는 내담자 뿐 아니라 상담자 자신을 돌보도록 돕는 하나의 방편이 되리라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들을 만나는 보다 다양한 상황의 상담자들, 마지막으로는 상담 체계를 다루는 이들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으로 그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방 법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 상담을 통해 청소년동

반자들이 체험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체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특히 경험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van Manen의 해석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따랐다.

현상학적 질문의 형성과 집중

van Manen(1994)은 어떤 현상을 지향하는 것은 이미 특정한 관심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본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현상에도 상담자로서의 지향과 관심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이고 관습적으로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면서, 무비판적인 삶의 태도를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점검해보는(이근호, 2007) 현상학적 반성과 환원의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 이해와 가정 그리고 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탐구, 어원 및 사전적 의미, 속담 및 관용어구의 의미, 문학작품에 집중하면서 현상학적 탐구를 해나가는 등, 연구자가 가졌던 지향이 참여자들과의 면담 및 해석 과정에서 발견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은 목적적 표집법과 눈덩이 표집법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경험 연구인만큼 청소년동반자 경력이 요구되었는데, 시간제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내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적응기간인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작업동맹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심리상담을 수행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의 청소년동반자 중에서도 대학원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상담교육

표 1. 연구 참여자의 통계적 특징

	성별	연령	전공	상담 경력	동반자 경력	근무 형태	관련 자격증	근무 지역
A	여	30대 후반	상담교육	5년	3년 9개월	시간제, 전일제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발달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서울 경기
B	여	40대 후반	상담심리치료	5년	3년	시간제	상담심리사 2급	서울
C	여	30대 후반	상담심리	7년	5년	시간제, 전일제	청소년상담사 3급, 사회복지사 2급	서울 경기
D	여	40대 후반	상담교육	2년	8개월	시간제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경기
E	여	30대 초반	아동심리치료	3년	3년	시간제	청소년상담사 3급, 놀이심리상담사 2급	서울
F	여	40대 후반	상담심리	8년	2년	전일제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경기
G	남	30대 중반	상담심리	5년	3년	시간제	상담심리사 2급	서울
H	여	40대 초반	상담심리	5년	1년 6개월	시간제	상담심리사 2급	경기

을 전공한 자로 제한하였다. 최종적인 연구 참여자는 총 8명으로, 30·40대가 각 4명, 여성 7명·남성 1명이다. 상담 경력은 2~8년, 청소년동반자 근무 경력은 8개월~5년이었으며, 전일제 1명·시간제 5명, 시간제-전일제 모두 경험 2명으로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였다. 8명 모두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연구 당시에는 2명이 재직 중이었다.

자료 수집과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5년 8월~2016년 2월, 총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들으며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추가적 질문을 하는 비구조화된 방식의 Pilot 인터뷰를 거쳐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을 정하였는데 연구 참여자에 대한 통계적·이론적 정보 및 청소년동반자로서의 경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작업동맹 형성의 경험과 이 경험이 참여자에게 가진 의미에 대한 심층적 질문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세부 질문이 기재된 질문지 및 연구 안내문, 동의서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한 뒤 총 11명에게 전송하였으며 이 중 8명과 1~3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에는 참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들이 속한 상담센터로 방문하거나 센터 주변의 카페를 이용하였다. 1~2시간 정도가 소요된 면담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되도록 면담 직후 전사함으로써 면담의 생생함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녹취록과 더불어 행동이나 표정, 음성의 높낮이 변화 등에 대한 메모, 연구자의 일기를 활용하였으며, 녹취자료 반복 청취를 통해 목소리의 톤이나 강조 등을 확인하면서 참여자의 표현이 또렷해지는 지점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했듯이, 분석 후에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결과 및 발췌문 등을 전송·확인받아 자료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든 자료는 연구자 개인용 컴퓨터에서만 작업하고 USB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관리했으며,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및 동료에게 검토를 받을 때에는 인쇄물을 배부한 뒤 수거하였다. 부득이하게 메일로 자료를 보냈을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여 삭제한 뒤 이를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 및 해석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의 체험 속에서 본질을 찾는데 집중하였다. 또한 체험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의미 단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van Manen(1994)에 따르면 연구자가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본질의 주제적 측면, 즉 의미 단위가 파악되어야만 체험의 본질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각각의 문장과 단락을 정독하면서 불필요한 말은 제하고, 반복되는 말들은 살리고자 하였다. 즉, 현상학이 강조한 ‘어떤 것'(some-'thing')을 바로 그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 없이는 어떤 것이 바로 그것일 수 없게 하는 것’을 발견하고자 하였다(van Manen, 1994). 이러한 의미 단위 발견 후에는 카테고리를 설정·범주화하는 단계를 거쳤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시금 인터뷰 자료로 돌아가 확인하는 과정을 수차례 되풀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van Manen(1994)이 제시한 ‘실존체(existentials)'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는 연구자가 현상학적 반성 이전에 갖고 있던 체험과 연구 주제와 참여자의 체험을 통해 얻은 체험의 결과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생활세계의 주제’라는 길잡이로서 ‘체험적 공간(공간성)’, ‘체험적 신체(신체성)’, ‘체험적 시간(시간성)’, ‘체험적

인간관계(관계성 혹은 공동체성)'를 뜻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본질적 주제에 접근, 4가지의 본질적 주제와 의미 및 13가지의 세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의 평가

연구자는 3년간 년 2회씩 질적 연구 및 현상학 연구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배우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를 계획한 2014년 9월부터 선행연구 및 자료조사를 수행하면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후 심층면담 전 Pilot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의 개입이나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지도교수의 지도와 더불어 현상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 전문가 1인,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상담 전문가 1인으로부터 면담의 질문지를 검토 받았다. 또한 청소년동반자 수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 전문가와 정기적인 교육 분석을 유지함으로써 연구 주제에 대해 현상학적 · 반성적 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위해서는 참여자 1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동반자 1인, 아동 · 청소년 상담을 전공한 관련 기관 종사자 2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료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모든 참여자에게 결과 및 인용문을 전송하여 오역에 대한 검토를 받았으며, 중복되었거나 복합적으로 보이는 의미들을 재검토하는 등 결과를 분류하고 주제 및 의미 단위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연구자의 왜곡 및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결 과

구성요소: 본질적 주제와 의미

청소년동반자의 작업동맹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고 이에 집중하였으며, 뒤이어 van Manen(1994)이 반성적 길잡이로 명명한 실존체의 도움을 받아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 속에 녹아있는 경험의 본질적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가지의 세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4개의 본질적 주제로 범주화되었다.

상담실을 나선 상담자: 혼란 속의 만남

'상담실을 나선 상담자'라는 본질적 주제는 작업동맹의 측면에서는 '혼란 속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여자들의 혼란에는 청소년동반자라는 역할이 주는 '정체성과 거리 조절의 혼란'과 더불어 역할을 떠나 개인으로 경험하는 '내면의 혼란'이 있었다. 또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호작용 속의 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혼란과의 마주함 속에서 참여자들과 내담자들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정체성과 거리 조절의 혼란. 참여자들은 청소년동반자 상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상담의 구조화나 상담자의 윤리적 태도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홀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때로는 방음이 안 되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혼란을 느끼기도 하며, 느닷없이 발생되는 경계의 무너짐 속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기도 하고, 손에 땀을 쥐는 긴장과 경직을 경험하기도 한다.

>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

표 2. 청소년동반자의 작업동맹 경험의 본질적 주제와 의미

실존체적 체험	세부 주제	본질적 주제와 의미
·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불안전(不安全)한 공간 · 상담이 시작되기 힘든 공간	정체성과 거리 조절의 혼란	상담실을 나선 상담자: 혼란 속의 만남
· 손에 땀을 쥠 · 가슴이 철렁		
· 너무 가까이 가는 것 아닐까? 그렇다고 경계를 내어주지 않을 수도 없고 · 나는 복지사인가? 죄에 대한 벌을 주는 사람인가?		
·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감수하게 되는		
· 아직도 거기 · 벗어나기 힘든 잔상	내면의 혼란	
· 다 해줄 수 없음에 속상하고 아픈 ·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괴로운		
· 같이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내담자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있는가?		
·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흐르고 · 미흡한 자신에 대한 눈뜸		
· 문전박대와 헛걸음 · 계속해서 변하여 더욱 파악하기 힘든 미궁 속	상호작용 속의 혼란	
· 목소리도 못 듣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 거부당하거나 휘둘리거나		
· 도와주고 싶지만 거절당하는		
·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시간 vs 두렵고 부담스러운 시간 · 물리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만나지지 않는		
· 같이 있되 같이 있지 않은	익숙하고도 낯선 자신과의 만남	관점의 확장과 수용: 참만남과 이해
· 내담자 뿐 아니라 내 자신조차 끌고 가고 있는 · 어느덧 소진되고 있는		
· 눈앞의 내담자 vs 의뢰지 상의 호소 문제		
· 상담에 대해 갖고 있던 고고한 이상을 깨달은 · 내담자에 대해 진짜로 알지 못하는 나		
· 주관적 세계로 더 넓게 젖어드는 · 부정적 피드백과 질책이 다반사인 그의 세계	내담자에 대한 또 다른 관점	
· 아이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내 마음도 함께 말랑 · 피부로 와 닿지 않던 것들이 와 닿는		
· 관계의 부재가 무엇보다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해		

실존체적 체험	세부 주제	본질적 주제와 의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사람의 부재		
・내담자의 출발선, 현 위치, 속도를 깨닫게 되는 ・내담자의 내면을 발견하게 되는		
・얼굴을 내밀 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행동과 마음 따로	작업동맹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작은 걸음, 걸음들이 모여 형성되는 것임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조금 가벼워지는		
・마음이 기울면 특별한 관계가 되고 ・받아들여지거나 VS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임을 보여주는 ・진심은 전해지기 마련		
・청소년동반자이기에 가 닿을 수 있었던 곳 ・상담적 공간과 생활공간 사이의 완충 지대	청소년 동반자이기에 가능했던 만남	
・말보다 중요한 행동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누군가 ・누구 하나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누군가		
・투박해도 진솔한 ・수확을 위해 필수적인 파종의 시간		
・함께 밖으로 ・상담실이나 집 외의 곳	시간을 나누는 동반자	청소년 동반자로 거듭나기: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함
・그네를 밀어주고 자전거를 타고 ・과자를 먹고, 함께 놀고		
・즐겁게 놀며 같이 웃고, 힘들어하면 같이 그냥 힘들어 하는 ・위기 시 떠오르는 사람		
・무얼 찾는지, 무얼 하려는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함께		
・관중석이 아닌 경주 트랙	알려주고 제안하며, 행동을 촉진하는 동반자	
・구체적으로 시범을 보이며 가르쳐주는 ・계획표를 검토하고 수험서를 확인하고		
・혼자서는 얻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주제의 대화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연결망의 중추 ・전체를 아우르며 굽어보는	자원을 공급하고 막힌 물길을 트는 동반자	
・연결하고 설득하고 ・발로 뛴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에 다리를 놓는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풀		
・막힌 곳이 뚫리고 자원이 흘러드는 것을 바라보는 ・마른 땅에 물이 고이려면		

실존체적 체험	세부 주제	본질적 주제와 의미
・출발 당시와 달라진 현 좌표	희망과 보람	거름이 되는 자원들: 또 다른 시작의 기반
・박수를 보냄 ・가슴이 벅차오름		
・서로의 대련의 대상 ・드디어 하고 싶은 것이 생기다		
・변화를 곁에서 함께 보는 기쁜 시간 ・함께 성취감을 경험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시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다져진 길	지지와 위안	
・조금 더 예민하고 세심해진 눈길 ・말하고 기댈 수 있는 곳		
・도움과 위로, 나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힘이 되는 팀과 센터, 네트워크의 공조		
・지지기반을 통해 쓸쓸함과 허함을 중화시키는 ・겪을 것을 겪을 만큼 겪는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 ・마음의 안식처	사명감과 책임감	
・도움닫기 뛰기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증인과도 같은 ・마음속으로든, 전화로든, 언제든 의논할 수 있는		
・어려울 때면 재개되는 연락 ・안부 문자 등을 통해 문득 확인하게 되는		

고? 남자 고등학생이라거나 그 친구가 가해 학생이라던가? 조금 더 폭력적인 문제들로 의뢰된 경우에는 약간 경직되고 긴장감을 갖고 갔던 거 같아요. <중략> 그리고 장소가 집이건, 센터건, 어쨌든 안정된 장소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만나서 바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이 친구한테 오롯이 집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여자 C)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또 엄마들이 오니까 약간 무슨 학습지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 이게 뭘까...'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해봤던 거 같아요. (참여자 A)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식으로 되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경계를 지키기가 되게 애매하지만 또 경계를 안 내줄 수도 없고 정말 애매한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여자 H)

그런 사례는 사실 감당이 잘 안 되죠. 걔네는 젓값을 치르고 나는 뭔가 벌주는 사람처럼 정체성이 모호한데... (참여자 B)

내면의 혼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청소년동반자들은 한계를 느끼며 내적인 혼란을 경험한다. 해결해주거나 도와줄 수 없음으로 인한 속상함,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더 명확해져 가는 한계에서 느껴지는 초라함 그리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느낌에 좌절하면서 내담자의 집을 나와서도 잔상에 메여있기도 한다.

> 동반자를 계속하면서 느꼈던 건, 초반에는 다 해 줄 수 없음에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집에 와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잔상이 남고... 그 가정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계속 아프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참여자 C)

> 그런 좌절이 되게 컸었던 거 같아요. 이거는 상담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것이 많이 시급했었고 그런 자원을 많이 알아보려고 했었고. 그런 친구들 보는 게 제일 안타까웠죠. 가슴이 아프고... 그렇다고 상담을... 끝내야 하잖아요? '몇 번을 연장을 하더라도 저 친구가 스스로 이렇게 가기에는 참 어려운...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것들이 저 아이한테 힘을 주고 한다고 해도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참여자 F)

상호작용 속의 혼란. 참여자들은 약속 장소까지 찾아가서도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하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돌아설 때의 씁쓸함, 냉랭하고 공격적인 표정과 목소리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의기소침해짐 등 거절감과 단절감을 경험한다. 상담을 이어가려다 보니 내담자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혼란에 빠지면서 거리를 지키고 싶은 두려움과 동시에 다가가서 돕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등 양가감정으로 괴로워한다.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마주함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간의 만남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한테... 최근에 한 아이는 -은둔하고 있는 아인데, 학업중단- 갔는데 고개도 안 돌리고 목소리도 못 듣고 나왔어요. 거절당한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상담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도전해보자. (참여자 B)

> 끝까지 화난 상태로 같이 인거지요. 화나서 오고, 엄마와의 계약에 의해서 와서. 그렇게 맘이 안 풀리는 친구들이 많았었던 거 같고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정이 고파서 바로 어제 만난 듯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되게 과하게 친한 척을 한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아이들마다 다 달라서... 만나러 갈 때 좀 마음이 기대-기대와 염려도 좀 같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갔던 거 같아요. 오늘은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참여자 C)

관점의 확장과 수용: 참만남과 이해

혼란을 겪어내며 묵묵히 버티는 동안 청소년동반자들은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관점의 확장과 수용'이라는 본질적 주제들은 작업동맹의 측면에서 보면 '참만남과 이해'를 의미하는데, '익숙하고도 낯선 자신과의 만남'과 '내담자'와 '작업동맹'에 대한 '또 다른 관점', 그리고 '청소년동반자이기에 가능했던 만남'이라는 세부 주제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관점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전까지는 진심으로 이해

하지 못하던 것들을 수용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익숙하고도 낯선 자신과의 만남. 참여자들은 자신이 상담에 대해 이상적 시각을 갖고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자신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음을 들려준다. 상담에 대한 자신의 판타지와 이상을 목도하고, 상담만이 진정으로 내담자와 상담자를 위하고 돌보는 길이라고 여겼음을 자각한다. 이를 통해 이상적 신념이 오히려 내담자와의 거리, 현실과의 거리를 만들어 냄을 깨닫고, 알지 못함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한다.

> 내담자 옆에 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막 끌어당긴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중략> 사실 그때는 들어도 그 말이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았던 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하니까 진짜 같이 보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참여자 H)

> 나만의 어떤 판타지가 있었던 거지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와서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동반자는 상담 플러스 사회복지 같은 게 들어있고 기관 같은 데서도 연계를 많이 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상담자고 물론 필요하면 연계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주로... 상담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촉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참여자 B)

> 상담이라는 부분이 삶의 100퍼센트는 아니잖아? 일부야. 일부분인데 착각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중략> 내담자에게는 삶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역할이... 나라는 역할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한 번 되새김질하게 됐거든. (참여자 D)

> 계기가 됐던 게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학년이었나? 그 친구는 왕따 문제로 경찰서에서 의뢰가 된 케이스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대인관계, 왕따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담하는 이 시간이 학원 선생님 만나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쇼크였어요. (참여자 B)

내담자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의 말랑말랑한 감수성과 풋풋함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과 만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짐을 경험한다. 내담자의 삶의 장소를 방문하고 탐색하면서 그들의 주관적 세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은 내담자를 바라보는 참여자들의 프레임을 바꾸어 놓는다.

> 그 아이 안의.. 뭔가 보이지 않았던 그 말랑거리고 상처받기 쉬운 어떤 거를 캐치하고 나면 그 친구에 대한 연민의 정이 조금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말랑거려지는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B)

> 오히려 애들을 보면 마음이 풀어져. 텍스트로 봤을 때보다 애들을 봤을 때, 실물을 봤을 때. <중략> 그 사건과 얘의 그런 갭을 보면서 '아, 얘가 어땠길래. 마음이 어떻게 힘들어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같이 교차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던 거 같아. (참여자 D)

이 분들이 상담센터로 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옷을 입고 뭐라도 좀...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그 공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내담자사 사는 세계? 그걸 좀 더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었어요. (참여자 G)

동반자 초 때는 약간 상처도 받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계속 살펴보면 그 친구가 신뢰관계 자체가 아예 없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고 오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참여자 C)

그러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안타깝고요. 물론 좀 취약한 애들이 동반자에 오기도 하지만 '아, 이렇게 너희들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여자 H)

작업동맹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참여자들은 자기 앞의 내담자와 함께함의 의미와 가치를 거듭 깨닫는다. 상담의 목표나 과제는 정해진 방향으로 내담자를 유도하거나 끌고 나오는데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작업동맹이란 상담자가 혼자 감수하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닌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임을 절감한다.

누군가 갑자기 자기 세계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협적인데 특히 센터를...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밖에 나오지를 않아서 센터를 못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자기 세계를 방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상담사라고 해서 쑥 들어오면 그냥 그 자체가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참여자 G)

상담자와 그걸 같이 보는 거, 같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 같아요. <중략> 그런데 그런 걸 빼고라도 그렇게 뭔가 같이 봐주는 작업을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거 같아요. (참여자 H)

이 친구가 그동안 만났던 어른은 엄마였잖아요? 근데 엄마와 다른 어른도 있다는... 다른 관계를 맺었던 게 이 친구한테는 좀 믿고 상담에 계속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늘 엄마의 피드백은 이거였다면 그게 아니라 그것도 수용해주면서 이런저런 대안도 같이 찾아보고 그런 경험을 못 했었던 것 같은데 상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고, (참여자 A)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이 애쓴 친구도 있고, 애쓰지 않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리고 애쓴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고, 그 친구한테는 제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보면... 그거 자체도 참 내담자한테 달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더 하면? 더 올 줄 알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내담자의 힘이긴 하구나. (참여자 C)

청소년동반자이기에 가능했던 만남. 참여자들은 청소년동반자 상담이 가진 독특성이 어떤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를 경험을 통해 깨달아간다. 청소년동반자이기에 방문할 수 있었던 그의 일상 속에 내담자를 위한

안전 기지를 형성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다.

> 나중에 마무리 종결할 때 평가 같은 것을 했는데 <중략> '플러스, 마이너스 0?' 그랬더니 시작을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했대요. <중략> 이 친구한테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구나... <중략> 이 친구한테 필요했던 거는 이런 어떤 누군가 같이 놀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필요했었고, 그것에 내가 조금 일조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흐뭇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B)

> '아, 내가 상담자가 아니라 그런 복지적인 부분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중략> 동반자가 상담 뿐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아이를 통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케어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는 건 정말 중요하다. <중략> 그렇게 상담을 고집... 전통적인 상담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고, 같이 웃어주고, 힘들어하면 같이 그냥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같이 견뎌주는 거. (참여자 F)

>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사례 같은 것도 저희는 보잖아요? 찾아가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중략> 집에만 있는 아이인데... 이거는 이제 상담센터를 못 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동반자로서 가게 되고 기간을 연장해서 이 아이가 밖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고... <중략> 이런 거는 처음에 제가 동반자였으니까 찾아가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냥 일반 상담 장면이었으면 애가 나올 수 있는 단계에서 왔던가 아니면 아예 못 봤던가 그런 사례들이 잖아요? (참여자 G)

> 저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사소한 건데도 이걸 물어볼 사람조차 주변에 없는 거예요. <중략> 옆에 사람 누구한테라도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친구들한테는 이런 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지적인 체제가 생겼다는 거? 그게 진짜 이 친구들한테 자원이 된 거 같아요. (참여자 H)

청소년동반자로 거듭나기: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함

내담자와 자신, 그리고 이 만남의 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청소년동반자들은 필요한 것, 할 수 있는 것의 실천을 병행한다. 청소년상담사에서 청소년동반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조화하며 거듭나는 것이다. '시간을 나누'거나, '알려주고 제안하고 행동을 촉진'하면서 '막힌 물길을 터 자원을 공급'하는 과정은 참여자들이 초반에 경험했던 혼란을 풀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간을 나누는 동반자. 참여자들은 내담자의 삶에 방문하여 그들에게 부재했던 경험을 함께 메워간다. 발이 닿지 않는 그네를 밀어주며 함께 놀거나, 바깥 활동을 꺼리는 내담자와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과자를 함께 먹으며 내담자들의 결핍감을 채우는 이 시간을 통해 참여자와 내담자들은 새롭게 거듭나는 관계를 경험한다.

>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지요. <중략>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학을 가가지고 적응이 좀 힘들고 또래 관계가 좀 잘 안 되어서 바깥 활동이 거의 없는 아이였거든요. 아이가 나가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해보자' 하고 같이 나가서 자전거 타고 간식도 먹고 아이랑 박물관 같은 데도 한 번 갔었고... (참여자 E)

청소년 상담에서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같이 뭔가를 먹고? 나누고? 하는 게. 성인상담에서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님과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담에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말로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울지 말고 일단 얘기부터 하라고, 그래서 지금 찔렀다는 거냐고 말았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찌르지는 않은 거예요. 칼로 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기는 했는데 멈춘 상태인 거예요. 그 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지요.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거 같다고 하는데, 그때 그 아이하고 그런 행동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참여자 H)

짐을 싸서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위기 상담이니까, 나가서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 전화해도 되겠냐?' 배고프니까 밥도 사주고 그리고 엄마가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중략> 가서도 계속 저랑 통화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2-3주 있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상담이 지속되고 <중략> 같이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느냐? 이런 게 되게 영향을 미쳤던 거 같아요. (참여자 A)

알려주고 제안하며, 행동을 촉진하는 동반자. 참여자들은 시선의 처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등 말로 설명하기 더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거나, 학습 계획표를 함께 검토하고 풀어온 문제를 채점하는 등의 개입을 통해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한다. 내담자들을 격려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은 함성을 지르는 관중보다는 트랙 내에서 함께 땀 흘려 뛰면서 매서운 지적을 일삼는 코치를 연상시킨다.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타킹 올 나간 거 신는 거, 화장하는 거, 옷 입는 거, 옷 빨아 입는 거... '이렇게 하면... 뭐냐... 안 좋아하지, 사람들이. 머리 좀 빡빡 문질러서 감어. 머리 이 흰 걸 없애야 돼.' 이러면서. '옷은 빨아 입었어?' 직접적으로 엄마처럼 잔소리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계속 얘기 해줬던 거 같아요, 하나하나. (참여자 F)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일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물건을 들어가지고 갈 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뭐가 부딪히지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걸 들었을 때 떨어지지 않을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그게 노력이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했을 때,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실수를 거의 안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실수를 안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여자 E)

네가 원하는 게 어떤 거냐? 이전에도 상담을 받았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상담을 한다면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나는 쓰레기통이 된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 그냥 쓰레기를 비우

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나는 네가 좀 더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너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참여자 B)

자기에게도 뭔가 통찰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면서 '어우,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다 옳고 내가 천사고 다른 사람이 악마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중략> 네가 사실은 진짜 그 행동을 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하니까 자기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하더라고요. (참여자 H)

자원을 공급하고 막힌 물길을 트는 동반자.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위한 자원을 찾고 연결하기 위해 상담 이외 시간에도 에너지를 쏟는다. 전화나 인터넷 검색 뿐 아니라 실제로 발로 뛰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또한 내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터전은 그의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아는 만큼,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자원이 되어줄 수 있는 대상들을 설득하면서 연결망을 확장해간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담자의 척박한 환경 속에 물길을 트는 역할을 한다.

그 친구에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이것저것 -학습지원이라던가 생활비 지원, 캠프 있으면 캠프에 보내는 거-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었던 거 같아요. 청소년 상담에서는 가정적으로 형편이나 뭐, 그런 거가 다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열악한 환경의 친구들한테는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참여자 F)

제가 아는 그 쪽 -메이크업-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저까지 셋이 만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려면 뭐 이러이러한 길로 공부하고 이렇다 정보제공하고 그랬거든요. <중략>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그런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중략> 상담도 진행했지만 여타의 그런 자원들을 연결-연계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같이 했었어요. (참여자 H)

그랬을 때 엄마 면담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중략> 그 얘기를 알아듣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중략> 엄마가 약간 이해를 넓히다보니까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중략>>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걸 다 접고 일단 얘의 욕구를 받아주고. 부모님이 그렇게 해가니 얘가 굉장히 호전 된 거야. (참여자 D)

엄마와의 관계가 좀 돈독해 진 부분이 있는 거지요. 제가 부모님 상담도 하면서 조언도 하고 해드렸는데 <중략> 엄마의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다는 게 놀랍다. 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믿었잖아? 그렇게 얘기해도 못 믿었었는데 진심으로 느껴졌다니 엄청난 변화인 거 같다. (참여자 B)

거름이 되는 자원들: 또 다른 시작의 기반

'거름이 되는 자원들'의 경험은 작업동맹의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시작의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동반자로서의 경험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돎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의 변화에 박수를 보내며 이 과정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희망과 보람'을 경험한다. 그리

고 이는 자신이 지금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준 주변의 '지지와 위안' 덕분에 가능했음을 들려준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았기에 버틸 수 있었음을 느끼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스스로를 이끄는 경험을 한다.

희망과 보람. 참여자들은 내담자들에게 숙고와 노력, 시도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뿌듯함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한다. 내담자들이 스스로를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면서 이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지지하면서 그 변화의 과정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와 기쁨, 성취감과 희망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선생님, 저는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막 박수를 쳐줬어요. (미래를 생각 한 거네요.) 어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아, 너 변화가 시작됐구나... 아... 선생님 감동 받았어. (참여자 B)

> 이번엔 정말 뭔가 이 아이하고 교감을 한 거 같다, 이 아이가 내 진심을 알아준 거 같다', 이런 경험을 하면, 그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E)

> 예전의 상담 기억이 좋았던 거지요. 근데 실상 그때는 전 뭘 그렇게 한 게 없었고 그랬었는데 상담 기억 자체가 좋았으니까 어쨌든 다시 상담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만난 거 자체가 의미가 있겠구나.' <중략> 분명히 한 번의 신뢰 관계가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을 믿을 때 '한번 마음을 열까?' 하는 기회를 갖게 하지 않을까. (참여자 C)

지지와 위안. 참여자들은 동료들로부터의 지지와 도움, 위로를 통해 상황을 버텼음을 들려준다. 팀과 센터, 네트워크의 공조 등 지지기반과 버팀목을 발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내담자와의 상담과 동맹관계에 집중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의 신뢰와 지지를 통해 낯선 곳에서 홀로 갖가지 문제들을 감당하며 겪었던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 혼자 가고... 상담이 잘 되는 거 같지 않았을 때... 집에 돌아오며 느꼈던 그 쓸쓸함과 허함들을 선생님들과 나누지 못하면 진짜 확 소진되거든요. <중략>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팀워, 그리고 센터에서 지지해주는 정도, 이게 실제로 동반자 선생님들이 그만두는 거 봤을 때도 제일 크더라고요. 중요해요. (참여자 C)

>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 전일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판단력이 좀 흐려진 거 같은데, 얘기를 좀 들어보고 대신 판단을 좀 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참여자 E)

> 전일제 동반자를 굉장히 오래하신 선생님 팀에 들어가서 그 분이 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실 동반자는 위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진짜 많이 배웠

> 어요. (참여자 H)

>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은 센터에 있는 팀장님이나 팀원들하고 좀 풀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위험한 사례는 실제로 상담원하고 팀장님하고 셋이 같이 간 경우도 있고요. (중략) 그런 사례는 함께 가서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긴장이 덜 됐던 거 같아요. (참여자 A)

사명감과 책임감. 자원이 되는 거름의 마지막 세부 주제는 사명감과 책임감이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며 협력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경험한 내담자에게, 참여자는 어려울 때 얘기를 건넬 수 있는 사람으로 각인되는데 이는 상담의 종결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청소년동반자를 지속할 힘을 내게 되고, 좋은 상담자가 되고자 스스로를 더욱 성장·단련시켜 간다.

> 그 동안의 과정들을 다 아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중략> 실제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뭔가 상담센터에 선생님이 계속.. 어쨌든 저는 계속 여기에 있으니까요. 만날 수 있잖아요? <중략> 오지 않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때 갈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갖게 해 줄 수 있는. (참여자 C)

> 사례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주 동반자 회의도 있었고, 사례 모임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례 모임을 통해서 제 내담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되고. (참여자 A)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동반자의 작업동맹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시사된 논의점은 아래와 같다.

연구 결과, 청소년동반자들의 작업동맹에서 경험되는 본질적 주제와 의미로 4가지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상담실을 나선 상담자' 경험은 '혼란 속의 만남'을 의미하는데 이는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최초의 질적 연구(박한샘, 고은영, 2009)에서 밝혀졌던 상담자 윤리와 관련된 딜레마 및 업무의 이중성 등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경험과 유사하다. 청소년동반자의 경험에 대한 또 다른 질적 연구(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4)에서도 찾아가는 상담의 딜레마 및 안전에 대한 불안 경험이 언급되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경험이 관찰되었다. 이는 또한 청소년동반자들이 역할의 모호성에 대해 높이 지각함을 밝혔던 황재성(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두 번째 주제인 '관점의 확장과 수용'은 청소년동반자들이 경험하는 '참만남과 이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청소년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사유가 아닌 내담자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한 양미진(200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세부 주제들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작업동맹이 유지되거나 하강되는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자 자신에 대한 지각이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던 권윤영(2005)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세 번째 주제인 '청소년동반자로 거듭나기'의 경

험은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극적・능동적으로 청소년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취지를 수용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혼란을 지나 정체성을 재구조화하는 변화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간의 선행연구(박한샘, 고은영, 2009; 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4;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들이 청소년동반자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요구해왔던 데 비해, 실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동반자들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해가는 모습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났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또한 청소년 상담자들이 가족 및 주변 자원을 활용하면서 실제적 개입을 할 때, 청소년 내담자의 변화가 있음을 강조한 그간의 연구 결과와도 흐름을 함께 한다(박병채, 2010; 백진영, 2008; 조아라, 2011; 황순길 외, 2015; Forsberg et al., 2014; Gatta et al., 2012; Hawley & Gerland, 2008). 네 번째 주제인 '거름이 되는 자원들'은 참여자들이 청소년동반자로 내담자와의 상담을 지속해가는 '또 다른 시작의 기반'을 의미한다. 상담자들의 소진 예방 및 문제 해결에 있어 동료 및 수퍼바이저의 지지 및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언급되어왔는데, 최한나(2005)에 의하면 상담자의 정서와 관계 능력은 상담자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상담의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청소년동반자들이 동료 및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 원동력을 얻고 버틸 힘을 찾아가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를 보호하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안정적인 상담 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선행연구에서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간의 연구(양재원 외, 2010; 최한나, 손자영, 이은주, 2013)들은 역할 갈등 및 비협조적 업무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한 소진과 직무의 어려움, 높은 이직・퇴직률 등 청소년동반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밝히는 데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조절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경험을 통해 드러내는 연구는 적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에 대한 해결중심적 관점보다 문제중심적 관점에 익숙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동반자들의 적응 및 수용, 지지의 경험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동반자와 그들이 속한 집단 간의 동맹 형성 또한 어우러진 경험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서 살펴봤듯 참여자들이 내담자와 작업동맹을 형성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 참여자들에게는 혼란과 성찰 그리고 재구성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듯 청소년동반자들을 관리하는 기관과 담당자들에게도 성찰과 관점을 확장하고 재구성하는 시간이 요구된다. 시간제 청소년동반자의 절반 이상이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등 소진과 이직이 잦은 상황에서, 적응과 성장을 위해 기다리며 협력하는 시간은 청소년동반자 뿐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는 기관과 담당자들에게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만이 청소년동반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버팀목으로서의 지지 체계 외에 또 다른 지원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청소년동반자들이 가진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존중하고 살리되,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역할과 다면적 접근에 대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은 상담 관련 내용의 비중이 높은데, 문

제 상황별 개입에 대한 사회복지 및 청소년지도 분야 전문가의 시각과 목소리를 함께 담는다면 학문적 배경에 따른 관점 차이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동반자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고려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전공한 자에게는 청소년지도학 및 사회복지학적 시각과 접근법을 익히도록 돕는 교육을, 반대로 사회복지 전공자에게는 상담적 시각과 접근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등 다중체계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완적 교육은 그들이 수행하는 청소년동반자 상담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신의 한계점은 무엇이며, 그것이 청소년과 상담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준비되고 안정적인 자세로 현장에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동반자와 그들이 속한 기관의 준비된 자세는 그들이 다차원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이탈할 것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의 청소년들을 만날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청소년동반자가 청소년 내담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담을 통해 문제 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면 지역 사회의 공동체적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동반자들은 대체로 오랜 시간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관계가 부재하였고 그로 인해 관계 형성 및 유지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다차원적 위기 속의 청소년 내담자들을 일선에서 만나는 상담자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동반자들의 작업동맹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작업동맹 형성 과정의 경험들은 상담의 시작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상담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이면서도 단단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며, 이를 이해함으로써 상담에서 만나는 다양한 내담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동반자의 작업동맹 경험이 가지는 본질적 주제와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동반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탐구를 실시하였으나 작업동맹이 상담자와 내담자, 양자(兩者) 간의 약속이자 협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 쪽의 경험만을 탐색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후속연구에서는 상담에 참여한 청소년 내담자들은 청소년동반자의 접근과 지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무엇이 각인되었는지,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를 밝힘으로써 상담자와 내담자 간 경험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전공한 청소년동반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동반자들의 작업동맹 경험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복지·청소년지도학 등 청소년동반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기반으로, 이들의 작업동맹 경험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청소년동반자의 학문적 배경이 가져오는 차이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극대화시키거나 보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동반자들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윤영 (2005). 작업동맹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권해수, 류진아 (2007). 학교 기반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8(3), 1205-1221.

권현용 (2013). 청소년 동반자의 상담사례를 통한 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질적 분석. 인문학논총, 33, 151-181.

김두현 (2007).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미와 과제. 청소년행동연구, 12, 1-9.

김영천 (2013). 질적 연구방법론 Ⅱ. 파주: 아카데미 프레스.

김정욱, 이훈진, 이장호 (2005). 내담자 방어성숙도, 상담자 개입 및 상담성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91-110.

김지환 (2012). 청소년 내담자의 작업동맹 변화 형태와 상담성과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혜숙, 공윤정, 박한샘 (1996). 청소년상담모형개발연구 Ⅱ-비협조적 내담자의 상담. 청소년상담연구(총서), 30, 1-64.

도미향 (2004). 한국의 청소년복지정책과 관련법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2(1), 35-53.

박병채 (2010). 청소년-상담자 작업동맹과 부모-상담자 작업동맹이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박성준, 김주일 (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7(3), 263-288.

박승곤, 김수정, 문성호 (2014). 청소년동반자의 역할수행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21(7), 119-144.

박음미, 최희철 (2015). 청소년동반자 상담활동이 청소년의 애착증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3(4), 5-10.

박지영 (2011). 청소년동반자와 청소년내담자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작업동맹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박한샘, 고은영 (2009). 청소년동반자 활동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1971-1994.

박한샘, 공윤정 (2011). 청소년동반자의 윤리적 갈등경험과 대처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2(3), 771-791.

백진영 (2008).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서진숙, 이동혁 (2010).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안녕감을 매개하는 자아정체감. 상담학연구, 11(4), 1599-1622.

설경옥, 임정임 (2013). 청소년동반자의 직무환경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187-201.

송재희 (2014). 청소년동반자의 삶의 의미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심리행동연구, 6(1), 55-73.

양미진, 이영희 (2006).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20.

양재원, 배주미, 강석영, 박용두, 송미경 (201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성격과 조직 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8(1), 73-92.

여성가족부 (2016). 2016년도 청소년사업안내.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 (2009).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1), 1-17.

이근호 (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파주: 한길사.

이영순, 김은정, 천성문(2009). 청소년동반자의 자기효능감, 직무환경,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韓國教育論壇, 8(2), 179-195.

이임천, 이상희 (2010). 청소년 동반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효과. 人間理解, 31(2), 123-139.

이정화 (2007). 치료 동맹의 발달 유형과 위기 해결 과정.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이채식 (2007). 청소년동반자역할과 CYS-Net 향후 과제. 청소년행동연구, 12, 1-11.

장경선 (2015). 놀이치료자의 부모 상담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숙경 (2007).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청소년동반자 활동의 효과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정유정 (2011). 청소년동반자가 상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정은미 (2004). 청소년 내담자의 작업동맹특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가족복지학, 9(1), 179-199.

조아라 (2011). 청소년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발달 수준이 상담자-부모의 상담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차은미 (20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소진 체험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최한나 (2005).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6(3), 713-727.

최한나, 손자영, 이은주 (2013). 청소년동반자의 직무요구, 심리적 소진, 이직의도 간의 관계: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191-2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연구보고 14(R10).

홍혜숙 (2015).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황순길, 손재환, 전연진, 양민정 (2015).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소년동반자 내담자의 문제 계층별 상담요구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3(1), 273-294.

황재성 (2009). 청소년동반자의 직무 환경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Berk, L. E. (2012). 생애발달 Ⅱ: 청소년기에서 후기 성인기까지[*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4th Edition*]. (이옥경, 박영신, 이현진, 김혜리, 정윤경, 김민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7에 출판).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3), 252-260.

Creswell, J. W. (2014). 질적 연구방법론〔2판〕: 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E: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7에 출판).

Fiorini, J. J., & Mullen, J. A. (2014). 슬픔과 상실을 겪은 아동・청소년 상담 및 사례[*Counseli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Grief and Loss*]. (하정희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6에 출판).

Forsberg, S., LoTempio, E., Bryson, S., Fitzpatrick, K.

K., & Le Grange, D. (2014). Parent-Therapist Alliance in Family-Based Treatment for Adolescents with Anorexia Nervosa.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2*(1), 53-58.

Gatta, M., Spoto, A., Svanellini, L., Lai, J., Toldo, I., Testa, C. P., & Battistella, P. A. (2012). Alliance with patient and collaboration with parents throughout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a pilot study. *Journal of Psychopathology, 18*, 28-34.

Greenson, R. R. (1965). The working alliance and the transference neuroses. *Psychoanalysis Quarterly, 34*(2), 155-181.

Hawley, K. M., & Garland, A. F. (2008). Working Alliance in Adolescent Outpatient Therapy: Youth, Parent and Therapist Reports and Associations with Therapy Outcomes. *Child Youth Care Forum, 37*, 59-74.

Meeks, J. E., & Bernet, W. (2001). *The fagile Alliance: Orientation to psychotherapy of the adolescent.* Krieger publishing company.

van Manen, M.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신경림, 안규남 역). 서울: 동녘(원전은 1990에 출판).

Winnicott, D. W. (2000).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 정서발달 이론에 대한 연구 - [*The maturational Processe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Studies in the Theory Emotional Development-*].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원전은 1984에 출판).

Winnicott, D. W. (2001). 박탈과 비행 -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 - [*Deprivation and Delinquency*]. Edit by Winnicott, C., Shepherd, R., & Davis, M. (이재훈, 박경애, 고승자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원전은 1984에 출판).

원고 접수일 : 2017. 10.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7. 12. 17.
게재 결정일 : 2017. 12. 17.

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7, Vol. 18, No. 6, 409-432

A Phenomenological Study on Working Alliance of Youth Companion

Lee, Eun-Seon
Chungcheong University

Chang, Seok-Jin
Sangmyung University

This is a phenomenological study on working alliance experience of youth companions(YC), which approached from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by van Manen in order to verify how the working alliance is formed with the client, and what does it refer. The study participants were 8 selected from those who majored in 'th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the graduate school and worked as YC for 6 months or longer. For experience exploration of participants, the study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face-to-face interview, phone call and mail for additional interviews. Also, the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on origin of term, colloquial expressions and papers to clarify hypothesis and pre-apprehension of researcher, and attempted to maintain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attitude through reflective thinking. Based on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4 essential subjects and meanings such as 'A Counselor out of a counseling office: An encounter in the confusion', 'Expansion of perspective and acceptance: Encountering and understanding', 'Reborn as a YC: Share the matters that are deemed to be necessary' and 'Resources, which become manure: Foundation of another beginning', and 13 detailed subjects were drawn up. In other words, when participants start meeting with youth, they face confusion which requires to open their eyes to new variable perspectives. By accepting the request, the participants finally experience the encountering with client in the relationship, and become the actual YC by understanding the client deeply and being with them for what they need. Also, based on the relationship as motivation, the YC start another relationship, and continue their experiences of work alliance as YC.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the YC and their counseling by revealing how YCs go to see youth in crisis, how they conduct YC counseling in the field of providing integrated service customized to individual, and what type of experiences to YCs have through their own voices. Also, it is significant as it implies the necessity of customized education process based on various academic background of YCs and as it can be the base data of follow-up experience researches.

Key words : youth companion, working alliance, experience,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study